

2020년 3월 12일

KIWOOM DAILY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| Strategist/Market 서상영 02) 3787-5241/ehdwl@kiwoom.com

미 증시, 코로나 공포에 잠식된 하루 세계 보건기구(WHO) '코로나 19, 세계적인 대유행(팬더믹)' 선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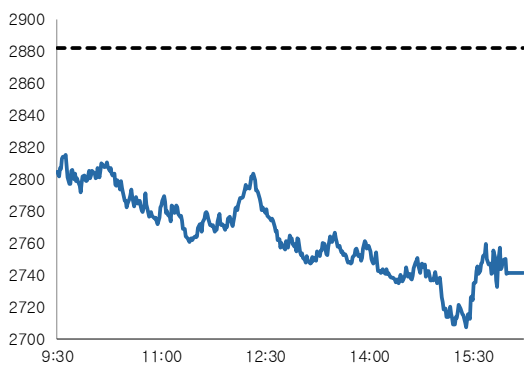
미 증시 변화요인: 코로나 19 공포 확산

미 증시는 미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,000 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 출발. 더 나아가 전일 급등 원인인 트럼프의 급여세 인하에 대해 의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 또한 부정적.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19 에 대해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규정하자 낙폭 확대. 한편,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으나, 공포 확대 여파로 영향은 제한(다우 -5.86%, 나스닥 -4.70%, S&P500 -4.89%, 러셀 2000 -6.41%)

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1,000 명을 넘어서는 등 미국에서의 감염증 환자가 급증. 이 결과는 미국 내 소비 둔화 우려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. 이런 가운데 세계 보건기구(WHO)가 이번 코로나 19 사례에 대해 '세계적인 대유행(팬더믹)' 이라고 선포. WHO 는 "중국 외 지역에서 발병이 13 배 증가하고, 해당 국가도 세배나 늘었다" 라고 주장했으며, 향후 확진자의 급증을 예상. 이로 인해 미 증시는 고점 대비 20% 이상 하락하는 등 약세장에 진입. WHO 는 지난 2009 년 신종플루 사태에서 세계적인 유행을 선포 했었음. 당시 금융시장은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정책 대응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 관련 사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음.

한편, 2009 년 신종플루 사태에서 미국은 확진자가 급증하자 결국 2009 년 10 월 23 일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이 '국가 비상사태'를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. 당시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여파로 각국이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해와 일시적인 충격을 줬을 뿐 지속적인 강세장을 이어 감. 한편, 트럼프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재정 지출 확대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. 물론 현재는 당시와 금융시장이 다름. 이미 2008 년 글로벌 주식시장은 40~60% 급락 했었으나, 2019 년에는 10~30% 상승 했기 때문. 그러나 한가지 공통된 사례는 각국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단행했고, 각국 정부 또한 재정지출을 확대했다는 점. 이를 감안 향후 주식시장은 2009 년처럼 상승하지는 못할 수 있으나, 공포에 잠식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. 이 후 주목할 부분은 ECB 통화정책회의(12 일), FOMC(18 일), BOJ 통화정책회의(19 일) 등과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이며, 특히 오늘 트럼프의 코로나 대책 발표도 중요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지수	등락률(%)	Close	D-1	지수	등락률(%)	Close	D-1
KOSPI		1,908.27	-2.78	홍콩항셱		25,231.61	-0.63
KOSDAQ		595.61	-3.93	영국		5,876.52	-1.40
DOW		23,553.22	-5.86	독일		10,438.68	-0.35
NASDAQ		7,952.05	-4.70	프랑스		4,610.25	-0.57
S&P 500		2,741.38	-4.89	스페인		7,436.40	-0.34
상하이종합		2,968.52	-0.94	그리스		602.48	-4.10
일본		19,416.06	-2.27	이탈리아		17,928.64	+0.33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

여행, 에너지, 금융주 급락

세계 보건 기구가 코로나 19에 대해 '세계적인 대유행'을 선포한 점을 감안 노웨이건 크루즈(-26.68%), 로얄 케리비안 크루즈(-14.13%), MGM(-13.04%), 카니발(-9.45%), 윈 리조트(-10.31%), 아메리칸 에어라인(-4.35%), 제트블루(-6.93%) 등 여행, 카지나, 항공업종이 급락했다. 나이키(-4.87%)는 라이벌인 아디다스가 중국에서 2월 한달 동안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 전년 대비 80%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3월 24일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했다.

국제유가가 공급증가 우려로 4% 넘게 급락하자 코노코필립스(-6.65%), EOG리소스(-6.59%) 등 셰일 오일 기업들이 부진했다. 특히 대출이 많은 아파체(-23.54%), 옥시덴탈(-17.71%) 등의 낙폭이 컸다. 에너지 기업 대출이 많은 BOK파이낸셜(-7.91%)도 동반 하락 했는데 FT가 1,1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기업들의 회사채 부실을 보도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. 이는 JP모건(-4.71%), BOA(-3.98%), 씨티그룹(-8.62%) 등 여타 금융주의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. 이와 함께 애플(-3.47%), 알파벳(-5.04%), MS(-4.53%) 등 대형 기술주는 물론 마이크론(-8.65%), 인텔(-4.30%), 브로드컴(-6.44%) 등도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종목이 부진했다. 다만, 길리어드사이언스(+1.88%)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. 유니아이티드 헬스(-0.79%)는 조 바이든의 경선 승리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.

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	ETF 종류	등락률
원유시추업체 ETF(XOP)	-7.35%	대형 가치주 ETF(IVE)	-5.17%
에너지섹터 ETF(OIH)	-9.81%	중형 가치주 ETF(IWS)	-5.90%
소매업체 ETF(XRT)	-7.22%	소형 가치주 ETF(IWN)	-6.53%
금융섹터 ETF(XLF)	-5.49%	대형 성장주 ETF(VUG)	-4.75%
기술섹터 ETF(XLK)	-4.72%	중형 성장주 ETF(IWP)	-5.29%
소셜 미디어업체 ETF(SOCL)	-5.09%	소형 성장주 ETF(IWO)	-6.46%
인터넷업체 ETF(FDN)	-5.46%	배당주 ETF(DVY)	-5.61%
리츠업체 ETF(XLRE)	-5.36%	신흥국 고배당 ETF(DEM)	-4.42%
주택건설업체 ETF(XHB)	-7.53%	신흥국 저변동성 ETF(EEMV)	-2.82%
바이오섹터 ETF(IBB)	-4.75%	미국 국채 ETF(IEF)	-1.00%
헬스케어 ETF(XLV)	-3.82%	하이일드 ETF(JNK)	-2.21%
곡물 ETF(DBA)	-1.13%	물가연동채 ETF(TIP)	-2.26%
반도체 ETF(SMH)	-5.40%	Long/short ETF(BTAL)	+1.31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	D-5	D-20
에너지	252.77	-5.46%	-27.83%	-38.27%
소재	300.90	-4.76%	-15.36%	-20.66%
산업재	546.68	-5.94%	-15.37%	-23.18%
경기소비재	849.84	-5.36%	-11.23%	-18.02%
필수소비재	591.64	-4.89%	-9.00%	-10.37%
헬스케어	1,064.27	-3.91%	-8.47%	-12.25%
금융	377.30	-5.52%	-17.90%	-26.83%
IT	1,463.00	-4.70%	-10.95%	-17.17%
커뮤니케이션	158.45	-4.33%	-10.80%	-16.29%
유틸리티	306.44	-5.10%	-11.71%	-12.54%
부동산	219.87	-5.44%	-11.52%	-13.40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한국 주식시장 전망

낙폭 축소 기대

MSCI 한국 지수 ETF 는 4.90% MSCI 신흥 지수 ETF 도 4.66% 하락했다.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,319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2.30pt 하락한 254.60pt 로 마감했다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,191.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전일 한국 증시는 장 후반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,000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을 키우며 한 때 1,900pt 를 하회하기도 했다.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는 코로나 19 이슈가 시장 모든 이슈를 잠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공포감이 확대되며 급락했다. 여기에 세계 보건 기구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 '세계적인 대 유행'을 선포하자 미 증시는 고점 대비 20% 넘게 하락해 '약세장'에 돌입 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. 그러나, 미 증시 하락 요인이 전일 이미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한다. 더불어 WHO 의 선포도 지난 9 일 '매우 현실화 되었다'라고 발표한 점을 감안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

다만,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일 수 있어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다.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주요 소비국의 소비 둔화 우려를 자극하고 현실화 시킨 코로나 19 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렇지만, 연준과 BOE 의 전격적인 50bp 금리 인하 등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미국의 납세 연기를 비롯해 여러 정책 발표, 여기에 미 행정부와 금융 당국자들의 긴급회동 등을 감안 공포 심리 완화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. 특히 오늘 저녁 있을 ECB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장 초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낙폭 축소를 기대하게 한다. 한편, 선물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을 감안 3 월물과 6 월물 스프레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스프레드가 상승할 경우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. 물론 스프레드가 약세를 보인다고 해도 매도 차익거래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압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.

주요 경제지표 결과

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.1% 상승

2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.1% 상승해 예상과 부합되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2.3% 상승했다.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.2%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2.4% 상승했다.

상품 및 FX 시장 동향

국제유가 4% 급락

국제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산유량 증가 우려가 지속되자 4% 하락했다. 특히 사우디 아람코는 사우디 에너지장관이 하루 1,300 만 배럴로 증산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는 기존의 1,200 만 배럴 보다 증산된 수치다. 러시아 또한 50 만 배럴 증산 할 수 있다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. 여기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수요 부진 우려 또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며, 이날 OPEC 은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요 증가 수치를 기존의 하루 92 만 배럴에서 하루 6 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.

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나, 유로화와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다. 파운드화는 BOE 가 전격적으로 50bp 금리를 인하한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. 유로화는 남유럽 재정 우려가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.

국채금리는 코로나 공포 심리가 심화되며 주식시장이 급락했으나 상승 했다. 이는 EU 가 250 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, 호주 또한 200 억 호주 달러 규모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. 이는 향후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. 더 나아가 미국 또한 코로나 19 에 대한 대처로 국채 발행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.

금은 연준에 이어 BOE 또한 전격 50bp 금리를 인하하고 각국 정부가 부양정책을 내놓자 하락했다. 한편, 남유럽 중앙은행들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금을 매각할 수 있다는 소식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.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속 하락했다.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32.98	-4.02	-29.50	Dollar Index	96.551	+0.14	-0.81
브렌트유	35.79	-3.84	-30.00	EUR/USD	1.127	-0.10	+1.20
금	1,642.30	-1.08	-0.04	USD/JPY	104.54	-1.04	-2.78
은	16.776	-1.06	-2.73	GBP/USD	1.2820	-0.70	-0.40
알루미늄	1,675.00	-1.30	-2.95	USD/CHF	0.9385	-0.16	-1.89
전기동	5,529.00	-0.66	-2.73	AUD/USD	0.6484	-0.32	-2.16
아연	1,987.00	+0.56	+0.25	USD/CAD	1.3779	+0.38	+2.94
옥수수	374.50	-0.79	-2.73	USD/BRL	4.8198	+3.81	+5.25
밀	512.75	-1.82	-1.06	USD/CNH	6.9688	+0.07	+0.66
대두	873.25	-0.34	-3.75	USD/KRW	1193.00	-0.02	+0.44
커피	112.05	-2.01	-5.36	USD/KRW NDF 1M	1191.77	+0.57	+0.60

10년물 금리	증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증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0.870	+6.65	-18.27	스페인	0.257	-8.30	+8.60
한국	1.365	+0.50	+6.70	포르투갈	0.405	-7.40	+16.90
일본	-0.066	-1.80	+6.00	그리스	1.528	-7.40	+33.80
독일	-0.742	+4.80	-10.40	이탈리아	1.173	-15.20	+16.10